



産 · 學을 이어주는 敎導

科學技術情報센터 · 金斗弘 所長

『一般的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冊을 많이 읽지 않는 便임이다』 차분한 學者風의 金斗弘所長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낸다.

조용하고 비교적 아름다운 環境으로 알려진 洪陵의 一角에 자리잡고 있는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에 今年 한 해에 外國으로부터 들어온 文獻은 3천5백여 종이며 이를 책 수로 환산하면 3萬여권이 된다. 그러나 이數字는 겨우 中進國 以下の 멕시코나 콩고와 맞먹는 숫자라니 우리 國民의 低調한 讀書熱의 口實은 이곳 洪陵까지 미치고 있는가 보다.

그나마 이 冊의 利用者를 分析해 보면 研究機關이 19%이고 其中 10,37%가 KIST에서 차지하고 있다니 우리 나라 연구기관이 얼마나 冊을 멀리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讀書는 習慣이며 反復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어린때부터 家庭에서 父母와 더불어 冊과 친숙해야 합니다.

中學이 無試驗制가 됐으니 國民學校 때 만이라도 딱딱한 注入式 敎育을 피하고 敎科內容을 深化시키는 독서를 권장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연구와 창조 의 개념을 더욱하게 되고 또 독서가 습관화 될 것입니다.」

金所長은 이같이 讀書하는 風潮의 길을 提示하면서 情報센터의 使命과 現況을 說明하는데 熱을 올린다.

即 情報센터 서비스의 一次의인 重要事業은 「情報周知 서비스」이며 이는 外國에서 研究 · 開發되고 있는 것을 迅速히 關係機關에 周知시켜 주는 일이라 한다.

이 서비스를 爲해서 다섯 가지 문헌 속보와 한 가지의 특허 속보를 낸다. 즉, (1) 數學物理篇, (2) 機械金屬篇, (3) 電氣電子篇, (4) 化學化工篇, (5) 生物農學藥學篇의 五種이다. 化學化工篇은 半月刊, 나머지는 月刊이다. 특허속보도 半月刊이다 종류로는 여섯가지, 冊數로는 8권이 매달 世界의 科學技術情報를 速報하는데 쓰여진다.

다음에 『情報管理세미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User Training이다. 利用者訓練을 目的으로 情報管理세미나 또는 講座를 하는데 1년에 네번, 5일간 쉼 한다. 서울에서 두번 지방에서 두번 하는데 今年에는 서울, 부산, 울산에서 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이라 한다. 또 特許 情報 管理라든지 교수학습에서의 情報管理 같은 특수 主題分野에 관해서는 두세 시간 쉼의 강연회를 1년에 여섯번 하고있다. 한편

한 달에 한 번은 時事性 있는 調査를 要請 없이도 自發的으로 하고 있는데 例로서 公害關係 文獻目録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彈藥로켓트 關係, 美國 · 日本의 特許目録 등을 내고 火藥助成劑 또는 로켓트推進劑目録 같이 많이 要求되고 있는 主題에 관해서 自發的으로 目録을 만들어 해당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最近에는 火災豫防과 消火에 관한 日本特許目録을 만들어 서울의 高層빌딩 管理事務所, 호텔, 政府機關, 市의 關係部署에 配布해 好評을 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 科學技術 振興에 크게 寄與 될 것이라고 金所長은 내다보고 있었다. 一例로서 한 日刊 經濟新聞은 外國特許中 재미 있고 우리 나라에서 開發을 要求



하고 있는 製品商品의 特許를 解説까지 달아서 두 篇 轉載 報道했고 目錄만 數十個 轉載 報道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教育方法은 “Know-what” 즉 무엇을 알 것인가 아니라 “Know-where” 즉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일깨워 情報의 所在를 分明히 認識시킬 必要가 있습니다. 學校에서 功들여 工夫하고 暗記했던 知識이 校門을 나서자 時代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 活用을 못하니 國民學校에서 中高等, 大學에 이르기까지 情報의 所在를 追跡하는 教育法을 써서 이 새로운 教育方式에 依해 새로운 知識을 늘 따라갈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金所長은 우리 나라의 在來式 教育法을 이같이 批判하면서 近代化作業에서 要請되고 있는 技術革新 問題를 다음과 같이, 높은 次元과 視野에서 論하고 있다.

『技術革新이라는 말은 企業合理化에 內包될 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側面이 있겠지만 첫째 企業은 亡해도 企業主는 亡하지 않는다는 風潮부터 拂拭해야 합니다 그러나 企業合理化의 中心은 역시 技術革新에 있다고 봅니다 이로써 새로운 製品과 經濟的인 商品을 많이 生産해야 해요. 端的으로 말해서 支術革新이라는 말은 國內에 없는 것을 開發해 낸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技術을 高度로 改善 深化시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를 爲해 外國에서 손쉬운 “Know-how” 를 도입하고 技術料를 支拂해서 技術革新을 도모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方法은 一種의 「컴플」注射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米봉책에 不遇합니다. 그러므로 自主的으로 技術開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爲해서는 연구투자者를 많이 해야 할 것이요』

또 金所長은 부연하기를 研究 실험에 對한 投資, 研究員에 대한 待遇, 報告書 作成에 對한 投資도 있을 것이지만 그 中 國內外的 先行研究 文獻을 많이 入手하는 것도 重要하다. 또 그런 意味에서 技術情報問題가 技術革新의 先行條件이 될 것이라고 說明 한다. 先進國의 有名企業體에 가보면 우리 나라의 科學技術情報센터 만한 資料室이 거의 다 具備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研究投資이다.

그나마 우리 나라에서는 資料處理를 제 멋대로 하고 있어 浪費가 많은 것을 개탄하면서 外國의 實例를 든다. 英國을 비롯한 유럽 各國에서는 이러한 情報서비스 機關을 強力히 統制하기 爲한 複數情報센터를 두어 重複된 資本 蒐集을 피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 購入하는 科學技術 文獻은 學術雜誌와 特殊資

料 및 技術報告를 包含하여 總 1,500 種에 達한다고 하는데 이 情報센터에서는 韓國科學英文抄錄誌, 韓國醫學文獻抄錄誌를 發行하면서 2千여 種의 外國文獻을 이 두個의 英文抄錄誌로써 다루고 있다. 現在는 總 3천5백 餘種의 新刊을 이 情報센터에서 入手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週刊 月刊 季刊 年刊 등을 모두 包含하여 1년에 받아들이는 外國雜誌를 總網羅한 것으로 약 3만卷 쯤 되는데 이資料가 企業體를 우선적으로 하고 大學, 研究機關 그리고 個人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집한 資料는 學術雜誌와 技術報告가 主이므로 館外貸出은 世界的인 慣例대로 禁止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년에 12권 발간되는 雜誌中 하나만 紛失됐다 해도 1년 치 雜誌는 모두 못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貸出을 안하는 代身, 제록스복사기와 마이크로 복사기를 備置하고 바쁜 사람에게는 即席에서 願하는 論文이나 特許를 複寫해 주고 그 밖엔 마이크로 複寫로 3,4일 內에 本人에게 到達케 우송(郵送)해 주고 있다.

또 注文이 있더라도 先行研究文獻을 調査해서 自己가 찾는 主題에 關한 先行研究文獻이 없을 경우 절대 用役을 受諾하지 않는다고 한다. 先行研究文獻은 自己가 研究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理論的 根據를 提示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研究를 果然 進行할 것인가의 與否를 指示해 주는 「고·스톱」役割을 하는 것이 또한 센터의 任務라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教授나 研究員들은 研究助成費는 타 가면서도 이러한 先行研究文獻에 對한 調査依賴를 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들이 大學圖書館을 利用한다 해도 우리 나라의 綜合大學校 圖書館에서 理工系 圖書를 200種 받는 데가 드문 實情이고 보면 더우기 自己가 찾는 專攻分野의 文獻은 數點 밖에 없을 것인데 그 제한된 자료로 研究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金所長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끝으로 金所長 個人에 關한 『情報資料』를 紹介하면, 親舊와 만나 약주를 나누며 談笑하는 것이 취미라 한다. 그에게는 讀書는 生活이지 趣味는 아니란다. 약주는 종류를 안 가리고 좋아하는 편, 健康은 弱體라고 本人은 말하지만 지각 결근이란 平生에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니 本人의 自評 그대로 『악발?』이랄까? 강한 意와 知의 凝固體란 느낌이이다.

膝下的 子女는 一男一女, 小設家 金東里氏를 叔父로 모시고 先親께서 남긴 書籍이 數千卷이라 하니 果然 適材適所란 金所長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